

예술·교육·즐거움 있는 시립미술관으로

◇광주시립미술관 혁신 계획안

3개년에 걸쳐 진행될 광주시립미술관 혁신계획안은 대중성, 창의성, 다양성, 정체성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중점 과제는 '예술과 교육, 즐거움이 함께하는 체험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예술의 전통 계승과 혁신을 통한 지역미술발전에의 기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대표 미술관으로서 미디어아트 협업 강화', '소장품 수집정책 수립 및 미술관 분관의 특성화 추진' 등 5가지다.

미술관은 과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미술관 공간 전략을 마련했다. 개방형 아카이브실 구축, 노후된 대강당 블랙박스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기존 자료실의 라이브러리 라운지 변신 등이다. 장기 계획으로는 현재 3층 관람실을 레스토랑으로 전환하고 중외공원 유휴지를 미로정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밖에 중외공원 팔각정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어르신 미술학교'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 콘텐츠도 대폭 강화한다. 호남전통의 계승과 혁신을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전, 국제 비엔날레 형식의 어린이·가족 단위 특별 기획전 '어린이·교육', 시의성 있는 전시 주제로 동시대 미술의 맥락을 들여다 보는 '현대미술초대전', 지역 출신 중진작가를 조명하는 'GMA 중진작가'전을 신설했다.

소장품 수집 정책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소장품 수집 단계 전략을 수립해 현재 소재 다수 작품 수집에서 고액 소수 작품 위주로 공개 매입하고 소장품 분야별 특성과 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현 7억원의 국내 우수 작품 수집비를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기증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일관된 정책 없이 늘어난 미술관 분관들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미

광주시립미술관 3개년 혁신계획안·2019년 사업계획 발표

지난해 9월 취임한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혁신발전계획을 준비해왔다. 미술관은 10일 광주시립미술관 혁신 계획안과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 관장은 "혁신의 키워드를 '정립(定立)'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이 이루어놓은 전통을 바탕으로 개관 27주년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 콘텐츠·미디어아트 협업 강화...분관 재정비
관장실, 레스토랑 전환하고 중외공원에 미로정원
음식 퍼포먼스 곁들인 '미향, 광주의 맛과 멋'전
남도 예술전·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전 등

술관은 금남로 분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사진전시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등 모두 7개의 분관을 운영중이지만 체계적인 전략 없는 무분별한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술관측은 미술관내 일반적이고 연구적 실과장 및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해, '광주시립미술관혁신 3개년 종합계획'을 올 6월까지 수립하고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어떤 전시 열리나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 중 남도의 명품들을 중점적으로 만나는 '남도의 예술'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의 100년'전,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아카이브전 '의재와 연진화'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과 협업하는 '미디어아트전-자연과 인간 사이, 다섯 개의 통로(가제)' 등이 예정돼 있다. 기존의 원로·작고 작가 초대전은 3월께 작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식당그림으로 유명한 광주의 전통을 보여주는 '미향, 광주의 맛과 멋'전은 미술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전의 첫번째 전시로 눈길을 끈다. 광주 지역 오래된 식당 벽에 걸린 각종 그림과 시각 이미지를 전시하고 식당들의 음식 퍼포먼스까지 가미되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국제전으로서 8월께 영국 런던에서 광주의 미디어아트를 보여주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전, 북경작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왕귀병 등 북경작센터에 입주했던 중국작가 21명을 초대·전시하는 '북경질주'전 등이 예정돼 있다.

그밖에 사진전시관에서는 오상조 초대전, 남광주아카이브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하정웅미술관에서는 하정웅컬렉션집중조명하는 하정웅컬렉션전, 독일 거주 작가 이영재 도자전 등을 연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미술관 아카데미는 '서양미술사'에 이어 올해는 '한국미술사' 연속 강좌를 진행하며 문화계 명사들을 초청 점심을 같이하며 강의를 듣는 '런치토크',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도 계속된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설한 '실버문화강좌'를 진행하며 '미술관 숨은 그림을 찾아라' (어린이), '전시연계 설명회' (고3 수험생)도 새롭게 시작한다. 하정웅미술관의 장수프로그램인 '인문학강좌',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등은 올해도 이어진다.

그밖에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범위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장해 중국, 대만,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미술기관과 1대1 작가 교류를 추진하고, 청년예술인지원센터는 융복합예술창작프로그램을 개설,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U-square 문화관 10주년 기념행사 풍성



오는 22일까지 금호갤러리 2·3관에서 진행되는 빛고를 문화센터 단체전 전시 모습. <유스퀘어 문화관 제공>

청년작가·사진 공모전...예술시장·버스킹 공연
선우예권·임지영·김다미 등 무대...느린 우체통

개관 10주년을 맞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 올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청년작가 공모전'은 올해 서양화·한국화·설화·공예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전통한국화와 팝 아트를 접목한 김다인 작가와 실험적인 유화기법을 선보이는 김미지 작가, 한동훈 작가, 박기태 작가 등 작품을 금호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청년 작가의 작품을 7m 남짓 폭의 벽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한 폭 갤러리'도 볼거리다. 이달에는 엄기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뒤 유스퀘어 청년작가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이 차례로 선보여진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아름다운 예술시장'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수공예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6·8월 금요일 저녁에는 '한 여름 밤의 예술시장'도 연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에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시민 투표를 통해 입상작이 선정된다. 입상작은 유스퀘어 문화관 야외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까지 순편지를 1년 뒤 무료로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 해피 유레터' <사진>도 이용객들을 기다린다. 같은 기간 동안 해피 유레터 경험담을 전자우편(u_culture@naver.com)으로 접수하는 수기 공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올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 임

지영·김다미·박지윤·김재영 등 쟁쟁한 유명 연주자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오는 2월19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피아니스트 이택기의 공연이 열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떠오르는 신예 첼리스트 박유신과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유스퀘어 문화관 10주년 기념음악회로 선우예권과 임지영의 연주회는 각각 5월27일과 6월에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금호아트홀(서울) 상주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정성급 연주자들이 연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행사도 있다. 유스퀘어의 1층 대합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달려라 피아노 in 유스퀘어'가 마련돼 있고 무대와 공연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버스킹존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애증의 모녀, 미술로 만난다



'엄마와 엄마의 엄마'

광주여성재단 25일까지

엄마와 딸의 '내밀한 애증' 관계를 미술로 포착한 전시가 광주여성재단에서 열리고 있다.

여성재단은 오는 25일까지 동구 호남동 재단 8층 전시관에서 '상상(相相):허스토리 오브 더 스페이스'를 연다. 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1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에 선정된 3개 팀 가운데 1개 팀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이연숙 작가의 총괄 아

래 유현주·강선형·박재순·박형진·석미숙·송재영·이지우·임지형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가발들이 천장에 걸려있는 다소 괴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엄마와 엄마의 엄마' 시리즈의 하나로, 엄마가 머리를 빗겨주는 모습을 담은 영상 작품도 공간도 벽면에 투영되고 있다. 머리를 매만져주는 행위는 미용사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의 인생과 겹치면서 그의 삶 궤적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카락을 '오브제'로 활용한 작품은 또 있다. 관람객의 시선 위치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백 투 백'은 여성성의 모호한 경

계를 지칭하고 있다.

미학자, 시각예술가, 무용가, 사운드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단편소설 2편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 송재영·임지형 작가는 '엄마의 고향 줄포', '도마 소리' 작품을 통해 엄마와 살면서 생긴 일화를 담았다.

이밖에 첼판에 엄마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Mother dearest', 전구를 이용한 설치작품 '모녀', 영상 작품 '허스토리', '디어 마미' 등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지난날에는 전시와 연계된 토론 '엄마와 엄마의 엄마'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의 062-670-0532.

/백희준 기자 bhj@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